

논문 21

일반계 고등학생과 실업계 고등학생의 가정 및 학교생활과 진로선택 및 진로의식의 비교연구

이 건 남**정 철 영**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인간은 대부분 상당한 기간의 학교 교육을 받은 후 각자의 자질과 적성 및 능력에 따라 직업을 선택하고 종사하며 자기가 선택한 직업을 통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생활의 기쁨과 보람을 찾으며, 다기의 생존과 사회적 가치를 확인하면서 자아실현을 이루기 위하여 노력한다(김원선, 1989). 자신의 인생을 설계하고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 만족스럽고 행복한 삶을 누리며, 보람된 일을 추구하려는 욕망을 가지고 있다. 또한, 행복한 개인으로서, 생산적인 사회 성원으로서 사회에 봉사하고, 나아가서 자아를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자기 적성에 맞는 직업을 선택하고 그에 맞는 능력을 잘 가꾸어야 한다(이현림, 남혜경, 1999: 54).

특히, 현재의 사회는 급속한 기술발달로 직업의 다양화, 세분화, 전문화를 촉진시켰고, 개인과 직업과의 관계가 복잡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변화 속에서 개인들은 새로운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새로운 지식과 기술 및 정보의 습득이 필요하게 되었다. 그 중에서도 청소년 시기는 생애 전반의 공간속에서 자신과 환경을 탐색하는 시기(Super, 1983)이며 자신의 진로결정을 현실화시키기 이전 단계인 잠정기(Ginzberg, 1973)에 해당되는 시기로 청소년에게 자신과 환경을 인식·탐색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적 기회를 제공하고 뚜렷한 진로목표를 실현할 수 있도록 준비된 청소년기를 보내게 해야 한다. 더욱이, 학교의 안전체제로부터 성인생활의 위험과 새로운 기회간의 가교(bridge)가 되는 학년(저학년에서 고학년), 학교(중

* 서울대 농산업교육과

** 서울대 농산업교육과 교수

등단계에서 고등단계), 그리고 학교에서 취업으로의 전환(transition)을 경험하게 된다. 따라서 자신의 만족스런 진로전환(진학 혹은 취업 등)을 위하여 견실한 개인적 준비와 진로지도 등이 적절히 학교와 가정으로부터 제공받아야 한다(Petersson, 1998; 이지연 외, 2005에서 재인용).

하지만, 이 시기의 학생들은 자아에 대한 인식이나 직업의 세계, 환경적인 문제에 대한 인식이 충분히 발달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로를 계획하고 선택, 결정하는 경우가 많으며,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직업이 무엇인가를 사전에 알아야 하는 등의 여러 가지의 문제가 제기되게 된다(권효성, 1990; 김원선, 1989; 안현주, 2000; 이지연 외, 2005; 이현림, 남혜경, 1999; 한국청소년개발원, 1999; 한상근 외, 2001).

특히, 우리나라에서 고등학교 시기는 성인으로 성장하고 발달하는데 매우 중요한 시기라 할 수 있다. 이 시기에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인지적인 영역에서 많은 변화를 경험하게 되며, 특히 진로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고등학교 3학년 시기는 자신의 진로에 대한 관심을 갖고, 바람직한 진로 의식을 함양한다는 것은 매우 가치 있는 일이다.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문제에 대해 방황하지 않고 냉철한 판단과 신념으로 진로선택을 분명히 해 둘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반계 고등학교에서의 진로지도는 학생들의 올바른 진로선택 및 의식을 함양시키기보다는 학생 개개인의 지능, 적성, 욕구 및 인성적 특성의 고려없이 상급학교 진학만을 위한 대학 입시지도로서 진로지도의 본질을 왜곡하는 시키는 경향이 있으며(김민경, 1995; 이현림, 남혜경, 1999; 차시훈, 2004; 한상근 외, 2001), 실업계 고등학교에서는 취업문제와 더불어 대학 진학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학생들에게 효율적인 진로지도가 이루어지지 않아 고등학교 졸업 후의 이들을 방황하게 만들고 있다(김소영, 2004; 김태웅, 2002; 박선식, 1998).

이와 같은 현재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의 대부분은 자신의 진로에 대한 정보의 부족, 적성과 능력에 대한 이해 부족, 자신의 미래 생활에 대한 불안감 등으로 인하여 자신의 진로선택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또한 입시위주의 진로지도는 진학지도에 치우쳐 다양한 진로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자료 제공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학생 자신에 대한 이해와 탐색을 통한 자신의 진로선택의 기회 박탈은 물론 건전하지 못한 진로의식을 갖게 하고 있다.

따라서, 고등학생들이 자신의 진로를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결정하고 이에 적합한 진로의식을 체고하기 위한 방법이 모색이 되어야 할 시점이라고 볼 수 있다. 이를 위해 학생들로 하여금 가정 및 학교생활을 통해 자신의 적성, 흥미, 능력 등을 정확히 파악하고 자신에게 적합한 진로계획을 통해서 이에 필요한 지식과 기능을 습득하며, 이를 통해서 진로선택을 하며, 올바른 진로의식을 형성해야 한다. 또한, 행복한 개인으로서, 생산적인 사회의 성인으로서, 성공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올바른 진로선택과 진로의식이 확립이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일반계 고등학교 3학년, 실업계 고등학교 3학년 각 2,000명 총 4,000명을 대표성 있게 추출하여 10년 이상 추적 조사하는 종단면 조사인 한국교육고용 데이터의 1차 조사 결과를 사용하여 학생들의 계열에 따른 가정생활 및 학교생활, 진로선

택 및 진로의식의 차이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학생들이 바람직한 진로지도를 위한 자료로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목적

고등학생들의 계열에 따른 가정 및 학교생활과 진로선택 및 진로의식의 차이를 비교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으며, 구체적인 연구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고등학교 학생들의 계열에 따른 가정생활의 차이를 비교한다.

둘째, 고등학교 학생들의 계열에 따른 학교생활의 차이를 비교한다.

셋째, 고등학교 학생들의 계열에 따른 진로선택의 차이를 비교한다.

넷째, 고등학교 학생들의 계열에 따른 진로의식의 차이를 비교한다.

3. 용어의 정의

가. 가정생활

자녀가 항상 변화는 환경과 균형있고 조화로운 관계를 유지하며, 정상적인 생활을 하도록 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부모를 포함한 가족구성원의 구성, 사회경제적 지위, 지역, 부모 자녀와의 대인 관계, 가치관, 태도를 포함한다.

나. 학교생활

학교에서 학생 개인을 중심으로 설치된 학교시설과 같은 학교환경과, 동급생, 선후배, 교사와의 관계, 교과활동, 봉사활동, 동아리활동 등의 학교환경과 모든 관계 및 활동이다.

다. 진로선택

고등학생들이 자신이 진로(대학진학, 취업, 창업 등)를 정하고 장래에 희망하는 직업을 선택하는 것이다.

라. 진로의식

개인의 진로발달 과정에서 형성된 진로에 대해 가지고 있는 심리적 구조, 즉 가치관, 직업관, 자아개념, 진학관 등을 포함하는 의식체계이다.

4. 연구의 제한

이 연구는 2004년을 기준으로 일반계 고등학교 3학년, 실업계 고등학교 3학년 각 2,000명 총 4,000명을 대표성 있게 추출하여 10년 이상 추적 조사하는 종단면 조사인 한국교육고용 데이터의 1차 조사 결과를 사용하기에 원래 한국교육고용패널(KEEP) 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종단적 조사(longitudinal survey)의 장점을 살리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즉, 고등학생의 개인특성, 환경, 학습, 직업 변인 등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교육 경험과 진학, 진로, 직업세계로의 이행 등에 얼마만한 변화가 일어났으며, 어떤 요인들이 발생한 변화를 설명할 수 있는지와 관련되는 변화(change)를 설명하지 않는다.

II. 이론적 배경

1. 일반계 및 실업계 고등학교의 일반적 현황

가. 일반계 및 실업계 고등학교

고등학교는 ‘중학교에서 받은 교육의 기초 위에 중등교육 및 기초적인 전문교육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초중등교육법 제45조 목적), 국가 사회에 대한 바른 이해와 건전한 비판력을 배양하고, 민족적 사명감을 자각할 수 있게 하며, 자신의 개성에 맞는 진로를 결정하게 함으로써 일반적인 교양을 높이고 기초적인 전문 기술을 익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즉, 대학 입학준비 또는 취업준비를 하면서 중견국민으로서의 자질을 육성하는 과정이다.

교육과정에 따라 일반계와 실업계로 구분되며, 일반계 고등학교는 보통 대학 진학을 목적으로 교육하며, 2학년부터 문과 및 이과계열로 구분하여 수업을 실시한다. 일반계 고등학교에는 인문사회과정, 자연과정, 일반계 직업과정 등을 두고 있다.

실업계 고등학교는 ‘농업, 공업, 상업, 임업, 정보·통신, 수산·해운, 가사·실업 등의 전문교육을 주로 하는 고등학교’를 말하며(초중등교육법 시행법 제80조 선발전기), 농업고등학교, 공업고등학교, 상업고등학교, 상업고등학교, 실업고등학교, 수산·해운 고등학교 등이 있다. 이와 함께 일반계와 실업계를 동시에 운영하는 종합 고등학교도 이에 해당한다. 이 연구에서는 일반계 고등학교와 실업계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나. 일반계 및 실업계 고등학교의 학교수 및 학생수

고등학교의 수는 1970년에서부터 2005년까지 계속적으로 889개교에서 2,095개교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계열별로는 일반계 고등학교는 1970년에 408개교에서 2005년

1,382개교로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실업계 고등학교는 1970년에 481개교에서 713개교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일반계 고등학교와 실업계 고등학교의 비율은 1970년도에 약 46대 54이었던 것이 2005년에는 66대 34로 실업계 고등학교의 비율이 감소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1> 일반계 및 실업계 고등학교 학교수 (단위: 개교, %)

구분	일반계 고등학교	실업계 고등학교	합계
1970	408(45.9)	481(54.1)	889(100.0)
1980	748(55.3)	605(44.7)	1,353(100.0)
1990	1,096(65.1)	587(34.9)	1,683(100.0)
2000	1,193(61.0)	764(39.0)	1,957(100.0)
2001	1,210(61.4)	759(38.6)	1,969(100.0)
2002	1,254(62.8)	741(37.1)	1,995(100.0)
2003	1,297(63.8)	734(36.2)	2,031(100.0)
2004	1,351(64.9)	729(35.1)	2,080(100.0)
2005	1,382(66.0)	713(34.0)	2,095(100.0)

자료: 한국교육개발원(2005). 교육정보통계시스템. [On-line]. Available: <http://cesi.kedi.re.kr>

우선, 전체 고등학교 학생수의 추이를 보면 1970년 315,367명이었는데, 2005년 현재는 1,762,896명으로 약 140만 명의 학생수가 증가하였다. 그리고,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수와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수의 비율은 2005년 현재 약 72대 28로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수가 상대적으로 많이 감소한 것으로 알 수 있다.

<표 2> 일반계 및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수 (단위: 명, %)

구분	일반계 고등학교			실업계 고등학교			합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1970	173,548 (55.0)	141,819 (45.0)	315,367 (100.0)	197,896 (72.0)	77,119 (28.0)	275,015 (100.0)	371,444 (62.9)	218,938 (37.1)	590,382 (100.0)
1980	532,289 (57.1)	400,316 (42.9)	932,605 (100.0)	442,109 (57.9)	322,078 (42.1)	764,187 (100.0)	974,398 (57.4)	722,394 (42.6)	1,696,792 (100.0)
1990	828,063 (56.2)	645,092 (43.8)	1,473,155 (100.0)	382,564 (47.2)	428,087 (52.8)	810,651 (100.0)	1,210,627 (53.0)	1,073,179 (47.0)	2,283,806 (100.0)
2000	697,203 (52.6)	627,279 (47.4)	1,324,482 (100.0)	380,937 (51.0)	366,049 (49.0)	746,986 (100.0)	1,078,140 (52.0)	993,328 (48.0)	2,071,468 (100.0)
2001	662,836 (52.6)	597,139 (47.4)	1,259,975 (100.0)	333,431 (51.2)	317,767 (48.8)	651,198 (100.0)	996,267 (52.1)	914,906 (47.9)	1,911,173 (100.0)
2002	640,522 (52.5)	579,624 (47.5)	1,220,146 (100.0)	298,943 (52.0)	276,420 (48.0)	575,363 (100.0)	939,465 (52.3)	856,044 (47.7)	1,795,509 (100.0)
2003	641,067 (52.4)	583,385 (47.6)	1,224,452 (100.0)	284,764 (52.5)	257,313 (47.5)	542,077 (100.0)	925,831 (52.4)	840,698 (47.6)	1,766,529 (100.0)
2004	644,719 (52.3)	587,291 (47.7)	1,232,010 (100.0)	273,859 (53.2)	240,691 (46.8)	514,550 (100.0)	918,578 (52.6)	827,982 (47.4)	1,746,560 (100.0)
2005	659,986 (52.4)	599,806 (47.6)	1,259,792 (100.0)	270,037 (53.7)	233,067 (46.3)	503,104 (100.0)	930,023 (52.8)	832,873 (47.2)	1,762,896 (100.0)

자료: 한국교육개발원(2005). 교육정보통계시스템. [On-line]. Available: <http://cesi.kedi.re.kr>

다. 일반계 및 실업계 고등학교 중도탈락생

고등학교 학생들의 중도탈락율을 살펴보면, 일반계 고등학교의 경우 2005년의 경우 0.75%가 중도탈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실업계 고등학교의 경우는 2.90%로 나타났다.

<표 3> 일반계 및 실업계 고등학교 중도탈락생

(단위: 명, %)

구분	일반계 고등학교			실업계 고등학교		
	전체학생	중도탈락생	탈락률	전체학생	중도탈락생	탈락률
1970	315,367	8,575	2.72	275,015	-	-
1980	932,605	15,422	1.65	764,187	15,062	1.97
1990	1,473,155	26,834	1.82	810,651	24,641	3.04
2000	1,342,482	16,520	1.24	746,986	32,188	4.31
2001	1,259,975	18,921	1.50	651,198	33,215	5.10
2002	1,220,146	20,166	1.65	575,363	27,966	4.86
2003	1,224,452	17,095	1.40	542,077	21,529	3.97
2004	1,232,010	10,485	0.85	514,550	17,415	3.33
2005	1,259,792	9,427	0.75	503,104	14,610	2.90

자료 : 한국교육개발원(2005). 교육정보통계시스템. [On-line]. Available: <http://cesi.kedi.re.kr>

라. 일반계 및 실업계 고등학교 졸업생의 진로

2005년 현재 일반계 고등학교 졸업생들의 진학률은 92.9%이며, 취업률은 1.4%로 나타났으며, 실업계 고등학교의 졸업생들의 진학률은 67.6%이며, 취업률은 27.7%로 나타났다. 인문계 및 실업계 고등학교 등 모든 계열 진학률이 취업률에 비하여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일반계 및 실업계 고등학교 졸업생의 진로

(단위: 명, %)

구분	일반계 고등학교						실업계 고등학교					
	졸업자	진학자	취업자	무직자	입대자	미상	졸업자	진학자	취업자	무직자	입대자	미상
1970	82,208 (100.0)	33,040 (40.2)	8,394 (10.2)	17,362 (21.1)	769 (0.9)	22,643 (27.5)	62,854 (100.0)	6,033 (9.6)	31,569 (50.2)	11,979 (19.1)	814 (1.3)	12,453 (19.8)
1980	266,331 (100.0)	104,307 (39.2)	25,291 (9.5)	63,079 (23.7)	812 (0.3)	72,842 (27.4)	201,057 (100.0)	23,019 (11.4)	102,812 (51.1)	44,908 (22.3)	1,494 (0.7)	28,824 (14.3)
1990	487,772 (100.0)	230,121 (47.2)	47,792 (9.8)	79,279 (16.3)	1,842 (0.4)	128,738 (26.4)	274,150 (100.0)	22,710 (8.3)	210,113 (76.6)	16,108 (5.9)	1,402 (0.5)	23,817 (8.7)
2000	473,665 (100.0)	397,641 (83.9)	11,729 (2.5)	21,265 (4.5)	361 (0.1)	42,669 (9.0)	291,047 (100.0)	122,170 (42.0)	149,543 (51.4)	10,508 (3.6)	523 (0.2)	8,303 (2.9)
2001	465,778 (100.0)	397,227 (85.3)	12,890 (2.8)	17,018 (3.7)	326 (0.1)	38,317 (8.2)	12,967 (100.0)	7,908 (44.9)	4,352 (48.4)	158 (3.8)	4 (0.2)	545 (2.7)
2002	439,586 (100.0)	382,380 (87.0)	10,291 (2.3)	13,450 (3.1)	302 (0.1)	33,163 (7.5)	231,127 (100.0)	115,103 (49.8)	104,138 (45.1)	6,155 (2.7)	347 (0.1)	5,384 (2.3)
2003	400,903 (100.0)	361,468 (90.2)	6,909 (1.7)	9,475 (2.4)	116 (0.1)	22,935 (5.7)	189,510 (100.0)	109,234 (57.6)	72,212 (38.1)	4,305 (2.3)	251 (0.1)	3,508 (1.9)
2004	405,715 (100.0)	364,458 (89.8)	5,748 (1.4)	12,870 (3.2)	306 (0.1)	22,333 (5.5)	182,835 (100.0)	113,944 (62.3)	60,062 (32.9)	5,040 (2.8)	354 (0.2)	3,435 (1.9)
2005	399,013 (100.0)	370,809 (92.9)	5,625 (1.4)	22,238 (5.6)	341 (0.1)	18,465 (4.6)	170,259 (100.0)	115,164 (67.6)	47,227 (27.7)	4,327 (2.5)	393 (0.2)	3,148 (1.8)

자료 : 한국교육개발원(2005). 교육정보통계시스템. [On-line]. Available: <http://cesi.kedi.re.kr>

2. 가정생활

가. 가정생활의 개념

가정이란 부모와 자녀와의 소규모의 인간관계로서 자연적 애정이 원동력이 되어 자녀들에게 사회생활에 대한 건전한 적응양식, 행동양식을 학습시켜 주며, 심신의 건강을 유지해주는 곳이다(조은숙, 1971). 가정은 개인생활의 기초로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이고 인생과 사회생활의 출발점이며, 가역성이 가장 큰 유아기나 아동기의 행동과 성격의 방향을 결정지어 주는 인간형성의 장 또는 제 1차 환경이다(신용일, 1978). 이처럼 가정은 인간이 생활하는데 일차적인 환경으로서 생활경험과 문화전달 및 습득과 인격형성의 장소인 동시에 개인의 행동을 이해할 수 있으며, 실제적이고 지속적인 영향을 주는 환경이므로(김미숙, 1989) 가정생활은 청소년에게 있어 중요하다.

이정선(1976)은 청소년들이 갖는 환경 중에서도 가정환경은 개인 성격의 핵심이 되는 자아개념을 형성하고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곳이며, 아동기에서 청년기에 이르기까지 개인의 행동에 많은 영향을 준다고 하여 가정생활의 중요성을 언급하였다(이종순, 1983; 구자은, 2000: 10에서 재인용). 김필식(1985)은 가정환경이란 자녀에게 영향을 미치는 가정의 모든 조건과 자극과 그 작용을 말하는 것으로 여기에는 가족원의 구성, 가족관계, 가정의 사회, 경제적 지위, 위치한 지역 등은 물론, 이들 요소의 상호작용에 의한 자녀의 양육 방식, 부모 자녀와의 대인 관계, 가치관 등도 포함된다(임철중, 2002). 한국진로교육학회(2000)에 따르면, 가족과의 접촉을 통해 최초의 사회적 경험을 갖게 되며, 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인성, 가치관, 태도, 동기 등의 행동성향을 습득하게 된다고 한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가정환경은 자녀가 항상 변화는 환경과 균형있고 조화로운 관계를 유지하며, 정상적인 생활을 하도록 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부모를 포함한 가족구성원의 구성, 사회경제적 지위, 지역, 부모와 자녀의 대인 관계, 가치관, 태도를 포함한다.

나. 가정생활에 영향을 주는 요인

Wolf(1964)는 가정 환경을 지위 변인과 과정 변인으로 구분하고, 지위 변인으로는 교육, 지능, 직업, 학력, 수입, 주거지 등을, 과정 변인으로는 부모 자녀의 상호관계를 들었고 황정규(1964)는 가정환경을 물적환경과 인적환경으로 분류하며 물적환경은 거주지, 가옥, 문화적 시설, 경제 생활 등이며, 인적환경에는 가족관계, 가정의 분위기 등을 들고 있다.

정원식(1989)은 종래의 물리적 환경으로 정리되던 환경적인 변인을 조정하여 지위환경으로 개념화하고 심리적인 측면에 해당하는 변인과 물리적 측면의 일부 변인을 구조환경으로 개념화하였으며 심리적 과정을 중심으로 한 과정환경으로 개념화하였다.

또한, 부모와의 안정적인 애착관계를 유지할수록 다양한 진로에 대한 탐색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뿐만 아니라 자신에 대해 확신을 가지며, 진로를 선택하는데 있어 훨씬 효율

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강차연, 박경, 2001; 이영선, 1999). ‘어머니(혹은 아버지)는 나의 감정을 존중한다’와 같은 신뢰요인, ‘어머니(혹은 아버지)는 내가 어려운 문제를 쉽게 이야기 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와 같은 대화 요인과 같은 것이 속한다.

<표 5> 가정생활에 영향을 주는 요인

학자	요인	세부요인
황정규(1964)	물적환경	거주지, 가옥, 문화적 시설, 경제 생활
	인적환경	가족관계, 가정의 분위기
정원식(1989)	지위환경	가정의 지위 환경: 양친의 유무, 양친의 혼인 상태, 양친의 동거 및 별거와 양친의 생존 여부, 생부 생모의 여부 주거지의 생태적 환경: 주택이 있는 주변 지역의 상태 사회·경제적 지위: 부모의 교육 정도, 부의 직업, 경제적 수준 가족 구성: 가족의 수, 형제자매의 수, 조부모의 유무, 그 밖의 동거인의 상황 가옥 상황: 집의 크기, 가족 구성원의 배설 상황
	구조환경	문화적 상태, 위생 상태, 언어 모형, 강화 체제, 가치 지향성, 학습체제, 집단 특성
	과정환경	부모의 양육 태도와 인성, 인간의 성격 형성, 부모의 위치, 기능 및 역할
Wolf(1964)	지위 변인	교육, 지능, 직업, 학력, 수입, 주거지
	과정 변인	부모 자녀의 상호관계

3. 학교생활

가. 학교생활의 개념

청소년기의 학교는 가정만큼이나 때로는 가정보다도 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부모의 보호를 떠나서 장래의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준비기로서의 의미도 중요하지만 청소년들에게 있어서 학교는 바로 그들의 생활 자체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학교는 가정과 더불어 청소년들의 가치관을 형성하고 그 사회의 생활양식과 규범을 자신의 행동기준으로 내면화하도록 교육을 시키며, 사회에의 적응을 용이하도록 하는 사회화의 기능을 수행하는 집단이다. 학교는 아동의 성장발달에 큰 영향을 주는 환경 중 유일하게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교육활동만을 전담하는 교육적인 환경으로 제도적인 법규에 의해 의도적이고 계획적으로 이루어진 유익한 사회적 집단의 성격을 띠고서 일정한 교육 목표와 이를 실천하기 위한 조직과 활동을 가지고 있는 사회집단으로서의 집단과정이 이루어지는 곳이다(강대운, 1997).

그리고, 학교환경은 한국진로교육학회(2000)에 따르면, 교사의 영향력이 크며 많은 경우에 교사에 의해서 진학이나 직업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으며 이는 학생들이 진로정보에 대

하여 교사에게 의존하게 되며 따라서 교사의 제안이나 충고에 의해 진로를 결정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였다. 그 외에 학교의 전통, 시설환경, 교육방침, 졸업생의 사회적 진출, 동창회 활동 등도 학생들이 진로를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고 볼 수 있다.

김현묵(2002)은 학교 환경에 대해 학교에서 학생 개인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활동 및 관계라고 한다면 여기에는 정규수업, 특별활동, 봉사활동 뿐 아니라 동급생, 선후배, 혹은 교사와의 관계 등도 포함될 것이며, 같은 학교생활이라도 학년이나 연령, 혹은 계열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학교환경은 학교에서 학생 개인을 중심으로 설치된 학교시설과 같은 학교환경과, 동급생, 선후배, 교사와의 관계, 교과활동, 봉사활동, 동아리활동을 포함한다.

나. 학교생활에 영향을 주는 요인

송영숙(1998)은 학교가 가지는 물리적 시설이나 진로교육과 관련된 학교시설, 진로교육을 위해 마련한 교육 자료 등에 따라 학생의 진로성숙이 차이가 나며, 이지영(2000)은 재학하고 있는 학교의 교육방침, 직업지도 활동, 동료집단의 성격요인, 진로교육 프로그램, 직업에 대한 정보제공 및 상담이 진로의식 및 성숙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으며, 이효성(2001)은 학교환경 변인 중 구조적 기능 즉, 물리적 환경, 학생 유형, 진학, 취업률과 같은 요인은 진로성숙과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으나 기능적인 환경 변인인 교사와의 친밀도, 상담 받고 싶은 교사의 유무, 교우관계, 서클활동 참여 만족도와 같은 부분에서는 차이가 있었다고 말하였다. 재학 중 근로 경험은 직업세계에 대한 현실을 직접 체험하여 직업에 대해 적응성을 높여 주며 직업세계에 필요한 조건들을 미리 알게 해주어, 직업획득을 위해 필요한 조건들을 갖추는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실제의 직업세계의 성공요인에 영향을 주었다. 또한, 직업세계를 이해하고 자신의 미래의 모습을 찾아내는데 정보 및 이해의 원천으로 작용할 수 있다. 하지만, 흥미와 관심이 없는 데도 경제적 이유로 단순 업무를 오랜 시간 동안 근로를 해야 한다면 이는 분명히 학업에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연구자들의 제안처럼 재학 중 근로경험을 연구할 때에는 질적 경험과 양적 경험을 구분하여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이지연 외, 2005). 허재환(2002)은 진로선택과 진로지도에 관련된 과목으로 과학, 수학, 영어 순으로 응답을 하였고, 김태웅(2002)은 전공 과목에 대한 흥미와 관심도에 대해서 현재 배우고 있는 전공과목에 대한 흥미와 관심도는 약간 흥미 있음(36.1%)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흥미와 관심 수준이 약함(23.5%)이 높게 나타났다. 배우고 있는 과목에 대한 흥미도로는 전공 및 실습 과목이 가장 높으며, 특별활동 과목, 예체능 과목 순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생활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종합하면 다음의 <표 6>과 같다.

<표 6> 학교생활에 영향을 주는 요인

학자	요인	세부요인
이효성(2001)	구조적 기능	물리적 환경, 학생 유형, 진학, 취업률
	기능적 기능	교사와의 친밀도, 상담 받고 싶은 교사의 유무, 교우관계, 서클활동 참여 만족도
이지영(2000)	-	재학하고 있는 학교의 교육방침, 직업지도 활동, 동료집단의 성격요인, 진로교육 프로그램, 직업에 대한 정보제공 및 상담

4. 진로선택

가. 진로선택의 개념

진로(career)란 개인의 생애직업발달과 그 과정내용을 가리키는 포괄적인 용어로 개인이 종사하는 직업의 계열을 의미한다(Tolbert, 1980). 진로선택은 진로에 관련된 사회적 강화, 모델화, 직접적 강화 그리고 그 단어 미 이미지의 결과로서 선호적 진로를 선택하는 능력이며, 학력이나 직업수준에 따른 사회적 기대에 대응하는 의식, 태도, 협동 그리고 사고의 총체를 의미한다(Jepsen, 1974; Krumboltz, 1982). 또한 진로선택은 의도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진로상의 모든 문제를 다루는 것으로서 학교교육과 관련되는 진학과 취업의 진로 상황에서 의도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선택의 심리적 기제라고 볼 수 있다(정채기, 1991).

우리나라에서 진로선택은 연속선상에 있어 한번 결정해서 선택한 전공계열과 직업을 바꾸는 것은 좀처럼 쉽지가 않다. 일반적으로 고등학생의 입장에서 좋은 대학, 유망한 학과에 진학하는 것이 성공적인 진로의 선택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것은 단지 진학선택일 뿐이다. 그러므로 진로선택은 자신의 흥미, 적성, 성격, 가치관을 파악해야 한다는 점에서 ‘나에 대한 공부’이며, 폭넓은 직업세계에 대한 다양한 지식을 가지고 자신에게 적합한 직업을 결정하는 것이다(우리교육, 1995).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들에게 있어 진로선택이란 자신이 진로(대학진학, 취업, 창업 등)를 정하고 장래에 희망하는 직업을 선택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나. 진로선택에 영향을 주는 요인

진로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강무섭과 박영숙(1984)은 개인적 차원, 사회경제적 차원, 교육 체제적인 차원으로 크게 나누며, 개인적 차원에서 연령, 능력, 인성, 직업적 흥미, 신체적 조건 등의 내재적 요인과 가정 배경적인 외재적인 요인으로 그리고 사회경제적인 요인에서 산업구조의 변화요인, 산업구조의 혁신요인, 인구증가요인, 사회의 직업가치

관, 교육체제 차원에서 학교배경과 학교정책을 들고 있다. 김민경(1995)은 진로선택과 그 관련변인으로 능력, 적성, 가정의 사회경제적 배경, 교육수준, 학업성적 등이 설명력이 있는 것으로 지적하고 있다. 이현림과 남혜경(1999)는 진로선택에 작용하는 것으로 개인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 직업적 요인으로 구분하고 개인적 요인으로 적성, 흥미, 연령, 종족, 가치관, 학력, 신체적 조건, 진로관, 성, 지능, 환경적 요인으로 자녀에 대한 기대, 가정의 전통과 종교, 부모의 사회 경제적 지위, 부모의 가치관, 타인들의 사회·심리적 요인(친구, 카운슬러, 선배, 형제, 교사), 문화 매체, 사회적 환경 그리고 학교요인, 직업적 요인으로는 직업적 의미, 직업에 대한 태도 및 가치관, 직업세계의 변천, 고용시장, 봉급 수준, 직장 환경, 근무 조건, 직업의 만족도, 사회적 공헌도, 보너스, 발전 가능성, 휴가, 직장 내의 인간관계, 정성, 존경, 직업명성으로 구분하였다. 한상근 외(2001)의 연구에서는 배경변인, 계열선택, 진로계획, 대학진학계획으로 구분하여, 배경변인으로 성별, 학년, 지역소재, 부모의 최종학력, 경제수준, 학교성적, 계열선택에서는 현재 계열을 선택한 이유, 그 배경에 관한 것, 진로계획에서는 졸업 후의 진학계획, 유학계획, 장래 희망직업, 대학진학계획에서는 희망계열 및 희망학과, 희망학과에 미친 요인, 진학관련 정보의 수집처, 희망학과에 대한 정보 습득 수준, 대학 진학관, 교차 지원의 여부 등이다.

이상의 내용을 표로 정리하여 제시하면 다음의 <표 7>과 같다.

<표 7> 진로선택에 영향을 주는 요인

학자	요인	세부요인
강무섭, 박영숙(1984)	개인적 차원	내재적 요인(연령, 능력, 인성, 직업적 흥미, 신체적 조건) 가정 배경적인 외재적인 요인
	사회경제적인 차원	산업구조의 변화요인 및 혁신요인, 인구증가요인, 사회의 직업가치관
	교육 체제적인 차원	학교배경과 학교정책
김민경(1995)	-	능력, 적성, 가정의 사회경제적 배경, 교육수준, 학업성적
이현림, 남혜경(1999)	개인적 요인	적성, 흥미, 연령, 종족, 가치관, 학력, 신체적 조건, 진로관, 성, 지능
	환경적 요인	자녀에 대한 기대, 가정의 전통과 종교, 부모의 사회 경제적 지위, 부모의 가치관, 타인들의 사회·심리적 요인(친구, 카운슬러, 선배, 형제, 교사), 문화 매체, 사회적 환경, 학교요인
	직업적 요인	직업적 의미, 직업에 대한 태도 및 가치관, 직업세계의 변천, 고용시장, 봉급 수준, 직장 환경, 근무조건, 직업의 만족도, 사회적 공헌도, 보너스, 발전 가능성, 휴가, 직장 내의 인간관계, 정성, 존경, 직업명성
한상근 외(2001)	배경변인	성별, 학년, 지역소재, 부모의 최종학력, 경제수준, 학교성적
	계열선택	현재 계열을 선택한 이유, 그 배경에 관한 것
	진로계획	졸업 후의 진학계획, 유학계획, 장래 희망직업
	대학진학계획	희망계열 및 희망학과, 희망학과에 미친 요인, 진학관련 정보의 수집처, 희망학과에 대한 정보 습득 수준, 대학 진학관, 교차 지원의 여부

한편, 본 연구와 관련하여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계열선택동기에 대해 류부현(1984)는 계열선택에 있어서 가정환경이나 성적, 김용선(1985)는 적성, 장래 직업, 대학 진학의 순으로, 박용선(1999)는 장래 직업, 소질 및 적성, 학과목의 성적의 순으로, 진미석(1999)는 적성, 직업, 진학할 학과, 성적순으로, 이현립, 남혜경(1999)는 성적수준, 장래직업전망, 적성 순으로, 한상근 외(2001)는 진학 유리, 취업, 적성의 순으로, 허재환(2002)는 적성고려, 과학자, 장래성의 순으로, 김태웅(2002)는 성적, 적성, 취업전망 순으로 나타났다. 즉, 적성, 성적, 직업 등으로 고려하여 계열을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졸업 후의 진로는 이현립, 남혜경(1999)은 4년제 대학, 전문대학, 취업의 순으로, 문경중(2004)은 진학, 취업, 기타의 순으로 나타났다.

신영(2002)에서 졸업 후 대학진학의 이유에 대해 응답자의 26.7%의 학생이 승진과 임금이 고졸자보다 유리하기 때문으로 가장 높은 반응을 나타냈으며 그 다음으로 24.5%의 학생이 실력향상을 위해서라는 반응을 보였으며, 학교의 취업·진학정보 제공정도에 대해 부족하다가 54.2%로 잘되고 있다가 8.0%으로 나타나, 부족하다는 반응이 잘되고 있다는 반응보다 46.2% 더 높게 나타나 학교에서의 진학정보 제공 실태는 아주 저조한 것을 알 수 있으며, 상담여부에 대해 전혀 상담을 안한다가 53.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별로 상담을 안한다가 34.2%로 상담을 하지 않는다고 전체응답자의 87.3%가 학교에서 선생님과 진로문제에 대해 상담하는 경험은 아주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5. 진로의식

가. 진로의식의 개념

의식이란 개념은 개인이 처하고 있는 환경의 주관적 반응으로서 스스로의 느낌, 생각 또는 행동에서 깨우치는 심리적 내용으로 정의하였다(신용섭, 1980: 27). 이는 자신의 무의식중에 작용하는 심리적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심리학 연구에 다루어지는 것으로 그 구성요소를 인식하는 뜻으로 사용된다. 진로의식 발달의 측면에서 보면, “진로의식이란 직업적 자아주체성(vocational self-identity)의 형성을 이것은 자신의 제반 특성을 정확히 파악하여 자아를 실현시킬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나름대로 인식하거나 사고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였다(강무섭, 박영숙, 1984: 53).

진로의식에 대한 사전적 정의를 살펴보면, “개인의 진로발달 과정에서 개인이 일의 진가와 진로선택의 준거를 이해하고 여러 가지 직업에 대한 소양을 갖추는 것으로 이 단계에서 직업관의 개발, 진로의 종류에 대한 이해, 직업과 여가활동의 관계 이해, 각 진로추진에 필요한 기초기능·학력·기술 등에 관한 소양, 자신의 잠재적 능력과 앞으로 사회인으로서의 역할을 개발하며 이해하고 사고하게 된다고 하였다(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교육연구소, 1994).

이상에서 내용을 종합하면, 진로의식이란 개인의 진로발달 과정에서 형성된 진로에 대해

가지고 있는 심리적 구조, 즉 가치관, 직업관, 자아개념, 진학관 등을 포함하는 의식체계라고 할 수 있다.

나. 진로의식에 영향을 주는 요인

이성진 외(1984)는 진로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우리나라 중고등학생들의 진로에 대한 고민과 그 내용, 진로결정에 대한 의견과 태도, 전공학과에 대한 인식, 직업에 대한 지식이나 의견 등의 일반적인 진로문제를 광범위하게 다루고 있다.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교육연구소(1994)에서는 개인의 진로발달 과정에서 개인이 일의 진가와 진로선택의 준거를 이해하고 여러 가지 직업에 대한 소양을 갖추는 것으로 직업관의 개발, 진로의 종류에 대한 이해, 직업과 여가활동의 관계 이해, 각 진로추진에 필요한 기초기능·학력·기술 등에 관한 소양, 자신의 잠재적 능력과 앞으로 사회인으로서의 역할을 개발하며 이해하고 사고하게 된다

박선식(1998)은 사회문화적 요인, 교육환경요인, 가정환경요인, 개인적 요인으로 크게 구분하였으며, 사회문화적 요인은 사회가 기대하는 가치나 직업세계의 요구와 같은 문화적인 것과 가장 빈번히 접촉하는 주거환경인 지역사회와 가정환경의 요소로 구분되며, 이 가운데 실증적인 연구의 변인으로 주로 다루고 있는 것은 지역, 부모의 직업,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 교육환경 요인으로는 학교급, 학년, 직업에 관련된 학습경험, 직업에 대한 정보원, 학교에서 배우는 과정, 직업적 학습경험, 직업적 정보에 접하는 기회, 직업결정에 영향을 주는 사람, 가정환경 요인으로는 성, 거주지역, 보호자 교육수준, 직업관, 개인적 요인으로는 개인의 생리·신체적 요인과 지적 요인, 정의적 요인 또는 성격적 요인 등을 들 수 있다. 생리·신체적인 것에는 연령, 성별, 신체, 건강 등이 포함되고 지적인 것에는 지능이나 적성, 학업성적 등이 포함되고 있으며, 정의적·성격적 요인에는 자아개념, 성격특성, 통제성향, 흥미, 가치관 등이 포함된다.

김홍춘(2002)은 진로의식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성별, 능력, 성격, 신체적 조건, 흥미, 학력, 가치관, 가정환경, 학교환경, 직업적 요인 등의 10가지로 구분하였다.

위의 내용을 정리한 것은 다음의 <표 8>과 같다.

한편, 본 연구와 관련 선행연구를 보면, 허재환(2002)에서 삶의 가치에 대한 물음에 대부분의 학생들의 심신의 건강(30.5%), 훌륭한 인격(27.8%), 사회적 지위와 명예 순으로 반응하였다. Javidan, Bemmels, Strarron-Devine 및 Dastmalchian(1995)은 '역할모델에 대한 경험적 연구는 부족하며 개인에게 공헌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거의 알려지지 않았다'고 말하면서 연구의 부족함을 시사하였다. 역할모델은 개인이 모방하도록 본보기 행동을 제공하는 부모, 교사, 감독 혹은 조언자로서 개인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으로 정의 할 수 있다(Erikson, 1985; 이지연, 2005에서 재인용).

<표 8> 진로의식에 영향을 주는 요인

학자	요인	세부요인
이성진 외(1984)	-	진로에 대한 고민과 그 내용, 진로결정에 대한 의견과 태도, 전공 학과에 대한 인식, 직업에 대한 지식이나 의견가정의 사회경제적인 지위, 부모의 수입, 부모의 교육정도, 주거지역, 주거양식, 가정의 종족적 배경, 가족규모, 부모의 기대, 형제의 영향, 출생순서, 가정의 가치관, 가정에 대한 개인의 태도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교육연구소(1994)	-	직업관의 개발, 진로의 종류에 대한 이해, 직업과 여가활동의 관계 이해, 각 진로추진에 필요한 기초기능·학력·기술 등에 관한 소양, 자신의 잠재적 능력, 사회인으로서의 역할을 개발·이해·사고
박선식(1998)	사회문화적 요인	지역, 부모의 직업,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
	교육환경요인	학교급, 학년, 직업에 관련된 학습경험, 직업에 대한 정보원, 학교에서 배우는 과정, 직업적 학습경험, 직업적 정보에 접하는 기회, 직업결정에 영향을 주는 사람
	가정환경요인	성, 거주지역, 보호자 교육수준, 직업관
	개인적 요인	생리·신체적인 것(연령, 성별, 신체, 건강) 지적인 것(지능, 적성, 학업성적) 정의적·성격적 요인(자아개념, 성격특성, 통제성향, 흥미, 가치관)
김홍춘(2002)	-	성별, 능력, 성격, 신체적 조건, 흥미, 학력, 가치관, 가정환경, 학교환경, 직업적 요인

김태웅(2002)은 진로선택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학교선생님(31.7%), 스스로 결정(26.8%), 친구 및 선배(25.2%), 김소영(2003)은 공업계 고등학교 진학에 영향을 준 사람을 묻는 질문에 담임선생님(34.1%), 친구 및 선배(29.9%), 부모(19.2%), 문경중(2004)은 진로에 영향을 준 사람에 대해 부모(36.0%), 스스로 결정(27.2%), 선생님(13.8%)으로 나타났다.

고등학교 학생들이 어떤 직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이유로서 '적성과 흥미'에 맞기 때문이라 그 직업에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현림, 남혜경(1999)는 직업선택의 기준으로 적성, 능력 발휘, 안정성 순으로 직업선택의 기준을 삼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상근 외(2001)의 직업선택에 대한 이유로 즐거워서(50.1%), 잘 할 수 있어서(22.7%), 돈 많이 벌어서(14.4%)의 순으로 나타났다.

III. 연구의 방법

1. 분석자료

이 연구는 고등학생들의 계열에 따라 가정 및 학교생활과 진로선택 및 진로의식을 비교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으며, 연구의 목적에 따라 분석에 사용된 자료는 2004년을 기준

으로 일반계 고등학교 3학년, 실업계 고등학교 3학년 각 2,000명 총 4,000명을 대표성 있게 추출하여 10년 이상 추적 조사하는 종단면 조사인 한국교육고용데이터의 1차 조사 결과를 이용하였다.

우선 가정생활의 경우, (1) 보호자 및 보호자와의 동거여부, (2) 부모님 혹은 보호자와의 관계, (3) 가정생활의 만족도 등의 구분하였다.

둘째, 학교생활의 경우, (1) 학교시설 및 환경, (2) 교사와의 관계, (3) 교과 흥미 및 교과자신감, (4) 재학 중의 일의 경험(근로경험 및 이유, 봉사활동 경험, 동아리 및 학생회(학급) 임원 경험), (5) 학교생활전반의 만족도 등으로 구분하였다.

셋째, 진로선택의 경우, (1) 계열선택의 이유, (2) 계열내 전공계열 선택시 고려사항, (3) 진로선택의 도움과 관련하여 재학 중 받은 진로지도 경험, (4) 졸업후의 진로계획(대학진학 및 이유, 취업 또는 창업 및 이유, 진로 미결정 이유)으로 구분하였다.

넷째, 진로의식의 경우, (1) 인생에 사는데 중요하게 여기는 것, (2) 역할모델, (3) 직업을 가지는 중요한 이유, (4) 직업선택의 중요한 요소, (5) 직업생활을 하기 위해 중요한 요인으로 구분하였다.

이 연구에서 사용한 한국교육고용패널 조사에서의 문항은 다음의 <표 9>와 같다.

<표 9> 연구에 사용된 문항

구분	한국교육고용패널 조사 영역	문항번호	
		일반계	실업계
가정생활	▶ 보호자 및 보호자와의 동거여부	17, 18	17, 18
	▶ 부모님 혹은 보호자와의 관계	19	19
	▶ 가정생활의 만족도	16	16
학교생활	▶ 학교시설 및 환경	6	6
	▶ 교사와의 관계	7	7
	▶ 교과흥미 및 교과자신감	30	30
	▶ 재학 중, 일의 경험		
	- 재학 중의 근로경험 및 이유	48, 48-3	48, 48-3
	- 봉사활동 경험	13	13
	- 동아리 및 학생회(학급) 임원 경험	11, 12	11, 12
	▶ 학교생활 전반의 만족도	4	4
진로선택	▶ 계열선택의 이유	1	1
	▶ 계열내 전공계열 선택시 고려 사항	3	3-1
	▶ 진로선택 도움 관련		
	- 재학 중 받은 진로지도 경험 및 만족도	44	44
		39	39
	▶ 졸업 후, 진로계획	40-1	40-1
	- 대학진학 이유	41-1	41-1
- 취업 또는 창업 이유	42	42	
	- 진로 미결정 이유		
진로의식	▶ 인생에 사는데 중요하게 여기는 것	49	49
	▶ 역할모델	36-3	36-3
	▶ 직업을 가지는 중요한 이유	53	53
	▶ 직업선택의 중요한 요소	54	54
	▶ 직업생활을 하기 위해 중요한 요인	55	55

2. 자료분석

자료분석을 위해 SPSS 13.0을 사용하여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등의 기술적 통계 방법과 고등학교 계열 및 성별에 따른 차이검증(x², t-검증)을 위하여 추리 통계방법을 사용하였으며, 유의수준은 .05로 설정하였다.

IV. 연구의 결과

1. 가정생활

가정생활을 보호자 및 보호자와의 동거여부, 부모님 혹은 보호자와의 관계, 가정생활의 만족도 등의 3가지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 보호자 및 보호자와의 동거여부

고등학생들의 보호자 유형에 대한 내용은 다음의 <표 10>과 같다. 전체적으로 아버지와 어머니가 모두가 보호자인 경우가 85.6%로 가장 많았으며, 어머니가 보호자인 경우(8.0%), 아버지가 보호자인 경우(5.0%)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계열별로는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가 보호자인 경우 일반계 고등학교(92.3%)가 실업계 고등학교(78.8%) 학생들보다 그 비율이 높았다. 한편, 통계적으로는 계열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5).

<표 10> 고등학생들의 보호자 유형

(단위: 명, %)

구분	계열		합계
	일반계	실업계	
아버지, 어머니	1,846(92.3)	1,576(78.8)	3,422(85.6)
아버지	53(2.7)	148(7.4)	201(5.0)
어머니	86(4.3)	232(11.6)	318(8.0)
할아버지	12(0.6)	33(1.7)	45(1.1)
형(오빠), 누나(언니)	1(0.1)	7(0.4)	8(0.2)
삼촌(외삼촌), 고모 (이모) 등의 친인척	2(0.1)	4(0.2)	6(0.2)
합계	2,000(100.0)	2,000(100.0)	4,000(100.0)
x ²	148.20*		

* p <.05

한편, 보호자와의 동거여부는 다음의 <표 11>과 같다. 보호자와 동거여부는 전체적으로 94.4%의 학생이 보호자와 함께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보호자와의 동거여부에 대해 계열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표 11> 보호자와의 동거여부

(단위: 명, %)

구분		계열		합계
		일반계	실업계	
보호자와의 동거여부	예	1,889(94.5)	1,886(94.3)	3,775(94.4)
	아니오	111(5.6)	114(2.9)	225(5.6)
합계		2,000(100.0)	2,000(100.0)	4,000(100.0)
χ^2		.04		-

* p < .05

나. 부모님 혹은 보호자와의 관계

고등학생들이 인식하는 부모님(혹은 보호자)과의 관계에 대한 내용은 다음의 <표 12>와 같다. 우선 남성보호자의 경우, 일반계 고등학생들은 '나의 성적에 관심이 많음'(3.96), '나와 그분과 갈등이 있음'(3.88), '나의 의견이나 감정을 믿고 존중함'(3.70), '나를 위한 물질적 지원을 해 줌'(3.14)의 순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실업계 고등학생들은 '그분을 존경함'(3.64), '나를 위한 물질적 지원을 해 줌'(3.57), '나의 의견이나 감정을 믿고 존중함'(3.55), '나의 성적에 관심이 있음'(3.37) 순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t값은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

한편, 여성보호자의 경우, 일반계 고등학생들은 '나의 성적에 관심이 많음'(4.10), '나를 위한 물질적 지원을 해 줌'(4.08), '그분을 존경함'(4.06), '나의 의견이나 감정을 믿고 존중함'(4.05)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실업계 고등학생들은 '그분을 존경함'(3.90), '나의 의견이나 감정을 믿고 존중함'(3.86), '나와 자주 대화를 함'(3.80), '나를 위한 물질적 지원을 해 줌'(3.77)의 순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나는 그분과 갈등이 있음'을 제외한 전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

<표 12> 고등학생들이 인식하는 부모님(혹은 보호자)과의 관계

구분		남성보호자			여성보호자		
		평균	표준편차	t	평균	표준편차	t
나의 의견이나 감정을 믿고 존중함	일반계	3.70	.95	-4.80 *	4.05	.83	-7.24 *
	실업계	3.55	.97		3.86	.84	
나의 성적에 관심이 많음	일반계	3.96	.87	-19.5 8*	4.10	.83	-14.9 8*
	실업계	3.37	.94		3.68	.91	
나를 위한 물질적 지원을 해줌	일반계	3.14	1.02	13.67 *	4.08	.81	-12.2 0*
	실업계	3.57	.88		3.77	.81	
나와 대화를 자주 함	일반계	2.78	1.07	6.61*	3.99	.88	-6.50 *
	실업계	2.99	1.05		3.80	.94	
나의 친구관계를 잘 알고 있음	일반계	2.44	1.05	12.89 *	3.68	.99	-1.98 *
	실업계	2.89	1.07		3.62	.99	
나는 그분과 갈등이 있음	일반계	3.88	.95	-42.0 9*	2.27	1.00	-.92
	실업계	2.50	1.05		2.24	.99	
나는 그분을 존경함	일반계	1.12	.72	88.84 *	4.06	.86	-5.49 *
	실업계	3.64	1.01		3.90	.86	

* p <.05

다. 가정생활의 만족도

고등학생들이 인식하고 있는 가정생활의 만족도는 다음의 <표 13>과 같다. 보통이다(3.00)를 기준으로 일반계 고등학교(3.70)가 실업계 고등학교(3.41) 학생들에 비하여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정생활에 대한 만족도에 대해 계열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p<.05).

<표 13> 고등학생들이 인식하는 가정생활 전반에 대한 만족도

구분	평균	표준편차	t
일반계	3.70	.91	-9.63*
실업계	3.41	.95	

* p <.05

2. 학교생활

학교생활을 학교시설 및 환경, 교사와의 관계, 교과흥미 및 교과자신감, 재학 중, 일의 경험(근로경험 및 이유, 봉사활동 경험, 동아리 및 학생회(학급) 임원 경험), 학교생활 전반의 만족도 등의 5가지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 학교시설 및 환경

고등학생들이 인식하는 학교시설 및 환경의 수준은 다음의 <표 14>와 같다. ‘학교 건물과 교실의 상태가 청결하고 좋음’에 대해 일반계 고등학교가 3.16, 실업계 고등학교가 3.32, ‘컴퓨터, 시청각 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음’에 대해 일반계 고등학교가 3.32, 실업계 고등학교가 3.11, ‘학교도서관에 읽을 책이 많음’에 대해 일반계 고등학교는 3.11, 실업계 고등학교가 3.10, ‘운동장 및 체육시설을 잘 갖추고 있음’에 대해 일반계 고등학교는 3.10, 실업계 고등학교가 3.22, ‘학교 주변 환경이 청결함’에 대해 일반계 고등학교는 3.22, 실업계 고등학교가 2.33, 특별실(미술실, 컴퓨터실 등) 사용의 용이성’에 대해 일반계 고등학교는 2.33, 실업계 고등학교는 1.19, ‘전공실습실의 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음’에 대해 실업계 고등학교가 3.44로 나타났다.

한편, 각 물음에 대한 계열간의 차이는 도서관에 책이 많다고 물음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물음에 대해서 집단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4> 고등학생이 인식하는 학교시설 및 환경에 대한 수준

구분		평균	표준편차	t
학교 건물과 교실의 상태가 청결하고 좋음	일반계	3.16	.92	5.650*
	실업계	3.32	.96	
컴퓨터, 시청각 시설	일반계	3.32	.96	-6.806*
	실업계	3.11	1.04	
학교도서관에 읽을 책이 많음	일반계	3.11	1.04	-.341
	실업계	3.10	1.00	
운동장 및 체육시설을 잘 갖추고 있음	일반계	3.10	1.00	3.942*
	실업계	3.22	.95	
학교 주변 환경이 청결함	일반계	3.22	.95	-28.581*
	실업계	2.33	1.03	
특별실(미술실, 컴퓨터실 등) 사용의 용이성	일반계	2.33	1.03	-45.978*
	실업계	1.19	.39	
전공실습실의 시설	-	-	-	-
	실업계	3.44	.95	

* p <.05

나. 교사와의 관계

고등학생들이 인식하는 교사와의 관계는 다음의 <표 15>와 같다. '존경하는 선생님이 있음'에 대해 일반계 고등학교는 80.9%, 실업계 고등학교는 71.3%이며, '나의 적성과 진로에 관심을 가져주는 선생님이 있음'에 대해서는 일반계 고등학교가 58.5%, 실업계 고등학교는 61.0%이며, '좋아하는 선생님이 있음'에 대해서는 일반계 고등학교가 76.2%, 실업계 고등학교가 70.3%, '나를 이해하는 선생님이 있음'에 대해서는 일반계 고등학교가 56.1%, 실업계 고등학교가 57.8%가 예라고 응답하였다.

한편, '존경하는 선생님이 있음'과 좋아하는 선생님이 있음'에 대해 계열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5> 고등학생들이 인식하는 교사와의 관계 (단위: 명, %)

구분		계열		합계
		일반계	실업계	
존경하는 선생님이 있음	예	1,618(80.9)	1,426(71.3)	3,044(76.1)
	아니오	382(19.1)	574(28.7)	956(23.9)
	χ^2	50.67*		
나의 적성과 진로에 관심을 가져주는 선생님이 있음	예	1,170(58.5)	1,220(61.0)	2,390(59.8)
	아니오	830(41.5)	780(39.0)	1,610(40.2)
	χ^2	3.66		
좋아하는 선생님이 있음	예	1,640(76.2)	1,406(70.3)	3,046(76.2)
	아니오	360(23.8)	593(29.7)	952(23.8)
	χ^2	76.51*		
나를 이해하는 선생님이 있음	예	1,121(56.1)	1,155(57.8)	2,276(56.9)
	아니오	877(43.9)	845(42.2)	1,721(43.1)
	χ^2	1.47		
합계		2,000(100.0)	2,000(100.0)	4,000(100.0)

* p <.05

다. 교과흥미 및 교과자신감

1) 교과 흥미

고등학생들이 인식하는 교과 흥미는 다음의 <표 16>과 같다. 일반계 고등학교(3.18)가 실업계 고등학교(2.84) 학생들에 비해서 교과에 대한 흥미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교과 흥미에 있어서 계열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5).

<표 16> 고등학생들이 인식하는 교과 흥미

구분	평균	표준편차	t
일반계	3.18	.56	-18.46*
실업계	2.84	.62	

* p <.05

주) 국어, 수학, 영어, 과학 영역, 사회영역, 음악, 미술, 체육 등 8가지 교과목에 대한 전체 평균을 사용함

실업계 고등학생들에게만 해당하는 전공교과에 대한 흥미는 3.43으로 높은 편이었다.

2) 교과자신감

고등학생들이 인식하는 교과에 대한 자신감은 다음의 <표 17>과 같다. 일반계 고등학교(2.68)가 실업계 고등학교(2.53) 학생들보다 교과에 대해 자신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고등학교 학생들이 인식하는 교과에 대한 자신감에 대해 계열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p<.05).

<표 17> 고등학생들이 인식하는 교과 자신감

구분	평균	표준편차	t
일반계	2.68	.52	-8.79*
실업계	2.53	.58	

* p <.05

주) 국어, 수학, 영어, 과학 영역, 사회영역, 음악, 미술, 체육 등의 8가지 교과목의 전체 평균을 사용함

실업계 고등학생들에게만 해당하는 전공교과에 대한 교과자신감은 1.28로 보통이다(3.00)에 비해서 상당히 낮게 나타났다.

라. 재학 중, 일의 경험

1) 재학 중의 근로(아르바이트) 경험 및 이유

고등학생들이 접한 재학 중의 근로경험여부는 다음의 <표 18>과 같다. 전체 고등학생 중에서 근로경험이 있는 학생은 38.4%이며, 실업계 고등학교(56.8%)가 일반계 고등학교(20.1%) 학생들보다 근로경험이 높았으며, 고등학생들이 접한 근로경험여부에 대해 계열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었다(p<.05).

<표 18> 고등학생들이 접한 재학 중의 근로경험여부

(단위: 명, %)

구분		계열		합계
		일반계	실업계	
재학중의 근로(아르바이트) 경험	예	402(20.1)	1,135(56.8)	1,537(38.4)
	아니오	1,598(79.9)	865(43.3)	2,463(61.6)
합계		2,000(100.0)	2,000(100.0)	4,000(100.0)
x ²		567.71*		

* p <.05

고등학생들이 재학 중에 근로를 하는 이유는 다음의 <표 19>와 같다. 전체 고등학생 중,

60.3%가 용돈을 벌기 위해서 근로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실업계 고등학교(62.3%)가 일반계 고등학교(54.7%) 학생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고등학생들이 재학 중에 근로를 하는 이유에 대해 계열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5$).

<표 19> 고등학생들이 재학 중 근로를 한 이유

(단위: 명, %)

구분	계열		합계
	일반계	실업계	
생활비(학비)를 벌려고	12(3.0)	63(5.6)	75(4.9)
용돈이 필요해서	220(54.7)	707(62.3)	927(60.3)
부모로부터 독립하고 싶어서	4(1.0)	18(1.6)	22(1.4)
여가시간을 활용하기 위하여	39(9.7)	104(9.2)	143(9.3)
취업경험을 쌓기 위해	28(7.0)	123(10.8)	151(9.8)
부모님이나 친지 등의 권유로	16(4.0)	24(2.1)	40(2.6)
재미있을 것 같아서	83(20.4)	96(8.5)	179(11.6)
합계	402(100.0)	1,135(100.0)	1,537(100.0)
χ^2	54.01*		

* $p < .05$

2) 봉사활동의 경험

고등학생들이 경험한 의미있는 봉사활동 여부는 다음의 <표 20>과 같다. 전체 고등학생 중, 의미있는 봉사활동의 경험을 했다고 응답한 학생이 42.2%이며, 계열별로는 실업계 고등학교(42.6%)가 일반계 고등학교(41.9%) 학생들보다 높게 나타났다.

한편, 고등학생들이 경험한 의미있는 봉사활동 여부에 대해 계열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p < .05$).

<표 20> 고등학생들이 경험한 의미 있는 봉사활동 여부

(단위: 명, %)

구분		계열		합계
		일반계	실업계	
의미있는 봉사활동의 경험	예	838(41.9)	851(42.6)	1,689(42.2)
	아니오	1,162(58.1)	1,149(57.4)	2,311(57.8)
합계		2,000(100.0)	2,000(100.0)	4,000(100.0)
χ^2		.17		

* $p < .05$

3) 동아리활동 및 학생회(학급) 임원 경험

고등학생들의 동아리 활동과 학생회(학급) 임원경험에 대한 내용은 다음의 <표 21>과 같다. 우선 동아리 경험이 있는 전체 고등학생의 39.2%이며, 일반계 고등학교(44.0%)가 실업계 고등학교(34.5%) 학생들보다 높았다. 한편, 학생회(학급) 임원 경험에 대해서는 전체 고등학생의 26.5%가 경험이 있으며, 계열별로는 실업계 고등학교(26.9%)가 일반계 고등학교(26.0%) 학생들보다 근소하게 많았다.

한편, 동아리 활동 경험에 대해서는 계열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지만, 학생회(학급)임원 경험에 대해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p < 0.5$).

<표 21> 동아리활동 및 학생회(학급) 임원 경험

(단위: 명, %)

구분		계열		합계
		일반계	실업계	
동아리 활동 경험	예	880(44.0)	689(34.5)	1,569(39.2)
	아니오	1,120(56.0)	1,311(65.6)	2,431(60.8)
	χ^2	38.26*		
학생회(학급)임원 경험	예	520(26.0)	538(26.9)	1,058(26.5)
	아니오	1,480(74.0)	1,462(73.1)	2,942(73.6)
	χ^2	.42		
합계		2,000(100.0)	2,000(100.0)	4,000(100.0)

* $p < .05$

마. 학교생활 전반의 만족도

고등학생들이 인식하는 학교생활 전반에 대한 만족도는 다음의 <표 22>와 같다. 보통이다(3.00)를 기준으로 일반계 고등학교(3.30)에 비하여 실업계 고등학교(3.41) 학생들이 학교생활에 대해 더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고등학생들이 인식하는 학교생활 전반에 대한 만족도가 계열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P < .05$).

<표 22> 고등학생들이 인식하는 학교생활 전반에 대한 만족도

구분	평균	표준편차	t
계열	일반계	3.30	4.103*
	실업계	3.41	

* $p < .05$

3. 진로선택

진로선택을 계열선택의 이유, 계열내 전공계열 선택시 고려 사항, 진로선택 도움 관련(재학 중 받은 진로지도 경험 및 만족도), 졸업 후, 진로계획(대학진학 이유, 취업 또는 창업 이유, 진로 미결정 이유) 등으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 계열선택의 이유

고등학생들이 생각하고 있는 계열선택의 이유는 다음의 <표 23>과 같다. 일반계 고등학생들의 경우를 보면, 대학진학에 대한 고려(73.4%)로 가장 높았고, 특별한 이유 없음(11.7%), 부모님의 권유(9.8%)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실업계 고등학생들의 경우, 성적 때문(42.7%)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았고, 취업선호(17.2), 대학진학유리(17.0%)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23> 고등학생들의 계열선택의 이유

(단위: 명, %)

구분	선택이유	합계
일반계	대학진학 고려	1,467(73.4)
	부모님의 권유	195(9.8)
	선생님의 권유	51(2.6)
	특별한 이유 없음	233(11.7)
	기타	549(2.7)
	합계	2,000(100.0)
실업계	취업선호	344(17.2)
	원하던 분야	271(13.6)
	가정형편	50(2.5)
	성적	854(42.7)
	대학진학유리	340(17.0)
	부모님 권유	50(2.5)
	선생님 권유	91(4.6)
	합계	2,000(100.0)

나. 고등학교 계열내의 전공계열 선택시, 고려한 사항

일반계 및 실업계 고등학교를 선택한 후, 계열내의 전공계열을 선택할 시 고려사항을 살펴보면, 다음의 <표 24>와 같다. 일반계 고등학생의 경우, 원하는 직업과 관련성(25.0%)을 고려했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고, 적성 고려(21.2%), 원하는 대학전공(17.9%)이 그 다음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실업계 고등학생의 경우, 성적고려(32.1%)로 가장 높았고, 적성(25.7%),

취업(24.2%)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24> 고등학교 계열내의 전공계열 선택시 고려 사항

(단위: 명, %)

구분	선택이유	합계
일반계 고등학교	원하는 직업과 관련성	500(25.0)
	원하는 대학 전공	358(17.9)
	나의 적성 고려	423(21.2)
	내신에 유리	122(6.1)
	수능성적이 잘 나올 것 같아서	82(4.1)
	선택한 계열 과목이 좋아서	194(9.7)
	선택한 계열 과목을 잘해서	42(2.1)
	선택하지 않은 계열과목이 싫어서	154(7.7)
	선택하지 않은 계열과목을 못해서	125(6.3)
	합계	2,000(100.0)
실업계 고등학교	나의 적성 고려	514(25.7)
	취업을 잘될 것 같아서	483(24.2)
	성적을 고려	642(32.1)
	주위의 권유로	181(9.1)
	재미있게 잘 할 것 같아서	180(9.0)
	합계	2,000(100.0)

다. 진로선택 도움 관련 사항

1) 재학 중 진로지도의 경험여부

고등학생들의 진로지도 경험여부는 다음의 <표 25>와 같다. 전체적으로 가장 많은 것은 진로관련검사의 경험(77.4%)이며, 진로상담(51.8%), 학교 및 학과안내(49.0%)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고등학생들이 받은 진로지도 경험여부에 대해 계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 것은 '진로와 직업'교과 이수, '진로관련 검사', '직업체험', '진로상담'이다.

<표 25> 재학 중 받은 진로지도의 경험여부

(단위: 명, %)

구분		계열		합계
		일반계	실업계	
'진로와 직업'교과 이수	예	935(34.6)	693(43.6)	1,628(40.7)
	아니오	1,065(65.4)	1,307(65.4)	2,372(29.3)
	χ^2	60.66*		
진로관련 강연	예	755(37.8)	798(39.9)	1,553(38.8)
	아니오	1,245(62.2)	1,202(60.1)	2,447(61.2)
	χ^2	1.946		
학교 및 학과안내	예	990(49.5)	969(48.5)	1,959(49.0)
	아니오	1,010(50.5)	1031(51.5)	2,041(51.0)
	χ^2	.44		
진로관련 검사	예	1674(83.7)	1,420(71.0)	3,094(77.4)
	아니오	326(16.3)	580(29.0)	906(22.6)
	χ^2	92.06*		
직업체험	예	128(6.4)	321(16.1)	449(11.2)
	아니오	1,872(93.6)	1,679(83.9)	3,551(88.8)
	χ^2	93.45*		
진로상담	예	1,090(54.5)	983(49.2)	2,073(51.8)
	아니오	910(45.5)	1,016(50.8)	1,926(48.2)
	χ^2	12.36*		
합계		2,000(100.0)	2,000(100.0)	4,000(100.0)

* p <.05

2) 재학 중 받은 진로지도의 만족도

고등학생들이 인식하는 재학 중 받은 진로지도의 만족도는 다음의 <표 26>과 같다. '진로관련 강연', '학교 및 학과 안내'에서는 일반계 고등학생들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진로와 직업' 교과 이수, '진로관련검사', '직업체험', '진로상담'에서는 실업계 고등학생들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한편, 고등학생들이 인식하는 재학 중 받은 진로지도의 만족도에 대해 계열에서는 '진로와 직업 교과이수', '학교 및 학과 안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었다(p<0.5).

<표 26> 고등학생들이 인식하는 재학 중 받은 진로지도의 만족도

구분		평균	표준편차	t
'진로와 직업' 교과 이수	일반계	2.49	.93	10.72*
	실업계	2.97	.84	
진로 관련 강연	일반계	3.18	.82	-.926
	실업계	3.14	.76	
학교 및 학과 안내	일반계	3.08	.77	-2.65*
	실업계	2.99	.70	
진로관련 검사	일반계	3.00	.81	.85
	실업계	3.02	.79	
직업체험	일반계	3.22	.87	.40
	실업계	3.26	.88	
진로상담	일반계	3.05	.79	1.34
	실업계	3.09	.75	

* p <.05

라. 졸업 후의 진로계획

1) 졸업 후의 진로계획

고등학생들이 생각하고 있는 졸업 후의 진로계획은 다음의 <표 27>과 같다. 일반계 고등학생들은 대학진학(95.4%)이 가장 높았으며, 군입대 혹은 결혼(3.5%), 취업 및 창업(1.6%)의 순으로 나타났다. 실업계 고등학생들도 역시 대학진학(68.4%)이 가장 높았으며, 취업 또는 창업(23.6%), 군입대 혹은 결혼(3.5%)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고등학생들이 생각하고 있는 졸업 후의 진로계획에 대해 계열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p<.05).

<표 27> 고등학생들이 생각하는 고등학교 졸업 후의 계획

(단위: 명, %)

구분	계열		합계
	일반계	실업계	
대학 진학	1,907(95.4)	1,367(68.4)	3,274(81.9)
취업 또는 창업	31(1.6)	472(23.6)	503(12.6)
군 입대/ 결혼	19(3.5)	69(3.5)	88(2.2)
무보수 가업 도움	1(0.1)	1(0.1)	2(0.1)
해외 유학	21(1.1)	11(0.6)	32(0.8)
아직 결정하지 못함	21(1.1)	80(4.0)	101(2.5)
합계	2,000(100.0)	2,000(100.0)	4,000(100.0)
χ^2	541.71*		

* p <.05

2) 대학진학, 취업 또는 창업, 진로를 결정하지 못한 이유

고등학생들이 대학진학, 취업 또는 창업, 진로를 결정하지 못한 이유는 다음의 <표 28>과 같다. 대학진학의 목적에 대해서 전체 고등학생 중, 47.3%가 '더 나은 직업을 갖기 위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사회적 대우'(24.0%), '더 많은 지식을 배우기 위해'(22.4%) 순으로 나타났다.

취업 혹은 창업을 하고자 하는 목적에 대해 전체 고등학생 중, 30.6%가 '돈을 벌고 싶어서'라고 응답한 것이 가장 많았으며, '가정의 경제적 곤란'(24.9%), '사회생활을 미리 경험하기 위해'(20.9%)의 순으로 나타났다.

진로미결정 이유에 대해 전체 고등학생 중, 30.7%가 '내가 잘하고 좋아하는 것을 모름'에 응답하였으며, '하고싶은 것이 많아 선택 힘들'(22.8%), '직업에 대해 아는 것이 적음'(13.9%)의 순을 나타냈다.

<표 28> 대학진학, 취업 또는 창업, 진로를 결정하지 못한 이유

(단위: 명, %)

구분		계열		합계
		일반계	실업계	
대학 진학	더 나은 직업을 갖기 위해	957(50.2)	592(43.3)	1,549(47.3)
	더 많은 지식을 배우기 위해	402(21.1)	333(24.4)	735(22.4)
	사회적 대우	441(23.1)	345(25.2)	786(24.0)
	부모님의 기대	54(2.8)	66(4.8)	120(3.7)
	좋은 배우자를 만나기 위해	17(0.9)	10(0.7)	27(0.8)
	특별한 이유 없음	36(1.9)	21(1.5)	57(1.7)
	합계	1,907(100.0)	1,367(100.0)	3,274(100.0)
	χ^2	22.72*		
취업 창업	사회생활을 미리 경험하기 위해	11(35.5)	94(19.9)	105(20.9)
	대학진학할 실력이 안되서	1(3.2)	24(5.1)	25(5.0)
	가정의 경제적 곤란	3(9.7)	122(25.8)	125(24.9)
	공부하기가 싫어서	1(3.2)	13(2.8)	14(2.8)
	대학을 나와도 도움이 안됨	5(16.1)	73(15.5)	78(15.5)
	돈을 벌고 싶어서	10(32.3)	144(30.5)	154(30.6)
	가업을 잇기 위해	-(0.0)	2(0.4)	2(0.4)
합계	31(100.0)	472(100.0)	503(100.0)	
	χ^2	6.83		
진로 미결정	내가 잘하고 좋아하는 것을 모름	7(33.3)	24(30.0)	31(30.7)
	직업에 대해 아는 것이 적음	3(14.3)	11(13.8)	14(13.9)
	부모님과 의견 차이	2(9.5)	7(8.8)	9(8.9)
	하고싶은 것이 많아 선택 힘들	3(14.3)	20(25.0)	23(22.8)
	생각해 본 적 없음	2(9.5)	9(11.3)	11(10.9)
	기타	4(19.0)	9(11.3)	13(12.9)
합계	21(100.0)	80(100.0)	101(100.0)	
	χ^2	1.75		

* p <.05

4. 진로의식

진로의식을 인생에 사는데 중요하게 여기는 것, 역할모델, 직업을 가지는 중요한 이유, 직업선택의 중요한 요소, 직업생활을 하기 위해 중요한 요인 등으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 인생을 사는데 중요하게 여기는 것

고등학생들이 인생을 사는 데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다음의 <표 29>와 같다. 전체 고등학생 중, 30.0%가 '좋은 배우자와 행복한 가정 이루는 것'으로 응답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소질과 적성에 맞는 일을 하는 것'(24.6%), '돈과 명성을 얻는 것'(15.6%)의 순으로 나타났다. 계열별로 '좋은 배우자와 행복한 가정 이루는 것'이 일반계 고등학교(30.0%), 실업계 고등학교(30.1%)로 거의 같은 비율로 나타났다.

<표 29> 고등학생들이 인식하는 인생을 사는데 중요한 것

(단위: 명, %)

구분	계열		합계
	일반계	실업계	
좋은 배우자와 행복한 가정 이루는 것	1,200(30.0)	1,202(30.1)	2,402(30.0)
소질과 적성에 맞는 일을 하는 것	1,067(26.7)	898(22.5)	1,965(24.6)
돈과 명성을 얻는 것	564(14.1)	644(16.1)	1,208(15.1)
종교생활을 잘 하는 것	73(1.8)	59(1.5)	132(1.7)
사회발전에 기여하는 것	52(1.3)	33(0.8)	85(1.1)
더 많이 배우고 자기 발전을 하는 것	312(7.8)	350(8.8)	662(8.3)
자녀 교육을 잘 시키는 것	73(1.8)	118(3.0)	191(2.4)
건강하게 사는 것	326(8.2)	485(12.1)	811(10.1)
여가 생활을 즐기는 것	247(6.2)	144(3.6)	391(4.9)
남을 위해 봉사하는 것	86(2.2)	67(1.7)	153(1.9)
합계	4,000(100.0)	4,000(100.0)	8,000(100.0)

* p <.05

주) 2가지를 적는 중복응답 문항임.

나. 역할모델

고등학생들이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는 역할모델에 대해 묻는 물음에 대한 내용은 다음의 <표 29>와 같다. 전체 고등학생 중, 58.1%가 있다고 응답을 하였으며, 일반계 고등학교(61.5%)가 실업계 고등학교(54.0%) 학생들보다 높게 나타났다. 한편, 고등학생들이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는 역할모델에 대해 계열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5).

<표 30> 고등학생들의 역할 모델 설정 여부

(단위: 명, %)

구분		계열		합계
		일반계	실업계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	예	888(61.5)	654(54.0)	1,542(58.1)
	아니오	555(38.5)	557(46.0)	1,112(41.9)
합계		1,443(100.0)	1,211(100.0)	2,654(100.0)
χ^2		15.35*		

* p <.05

다. 직업을 가지는 중요한 이유

고등학생들이 직업을 가지려는 이유에 대한 내용은 다음의 <표 31>과 같다. 전체 고등학생 중, 53.0%가 '자신과 가족의 생계 유지'를 위한 것으로 응답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자아실현'(25.8%), '사회적으로 인정받기 위해'(17.5%)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고등학생들이 직업을 가지려는 이유에 대해 계열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5).

<표 31> 고등학생들이 직업을 가지려는 이유

(단위: 명, %)

구분	계열		합계
	일반계	실업계	
자신과 가족의 생계 유지	983(49.2)	1,136(56.8)	2,119(53.0)
사회봉사 및 참여	86(4.3)	60(3.0)	146(3.7)
자아실현	619(31.0)	413(20.7)	1,032(25.8)
사회적으로 인정 받기 위해	311(15.6)	390(19.5)	701(17.5)
합계	1,999(100.0)	1,999(100.0)	3,998(100.0)
χ^2	65.70*		

* p <.05

라. 직업선택의 중요한 요소

고등학생들이 인식하는 직업선택시 중요한 요소는 다음의 <표 32>와 같다. 전체 고등학생 중, 38.6%가 '자신의 소질이나 적성에 맞는 것'을 응답하였으며, 그 다음으로는 '높은 임금, 소득을 기대할 수 있는 것'(21.3%), '자신의 발전가능성이 큰 것'(12.4%), '지속적인 고용이 보장되는 것'(11.5%)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32> 고등학생들이 인식하는 직업선택을 하는 데 중요한 요소

(단위: 명, %)

구분	계열		합계
	일반계	실업계	
자신의 소질이나 적성에 맞는 것	1,553(38.8)	1,536(38.4)	3,089(38.6)
높은 임금, 소득을 기대할 수 있는 것	826(20.7)	874(21.9)	1,700(21.3)
지속적인 고용이 보장되는 것	483(12.1)	438(11.0)	921(11.5)
자신의 발전가능성이 큰 것	429(10.7)	566(14.2)	995(12.4)
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것	105(2.6)	88(2.2)	193(2.4)
여가에 필요한 시간적 여유가 많은 것	253(6.3)	175(4.4)	428(5.4)
쾌적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것	87(2.2)	158(4.0)	245(3.1)
창의성, 자율성을 발휘할 수 있는 것	178(4.5)	115(2.9)	293(3.7)
사회적 평판이 좋은 것	86(2.2)	48(1.2)	134(1.7)
합계	4,000(100.0)	3,998(100.0)	7,998(100.0)

* p <.05

주) 2가지를 적는 중복응답 문항임.

마. 직업생활을 성공적으로 하기 위한 중요한 요인

고등학생들이 인식하는 직업생활을 성공적으로 하기 위한 중요한 요인은 다음의 <표 33>과 같다. 전체 고등학생 중, 52.5%가 ‘본인의 노력과 성실성’이라고 응답을 하였으며, ‘본인의 능력’(17.3%), ‘돈(자본)’(13.7%), ‘대인관계’(12.7%)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고등학생들이 직업생활을 성공적으로 하기 위한 중요한 요인에 대해 계열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5).

<표 33> 고등학생들이 인식하는 직업생활을 성공적으로 하기 위한 중요한 요인

(단위: 명, %)

구분	계열		합계
	일반계	실업계	
돈(자본)	205(10.3)	342(17.1)	547(13.7)
본인의 노력과 성실성	1,104(55.2)	995(49.8)	2,099(52.5)
대인관계	223(11.2)	285(14.3)	508(12.7)
본인의 능력	385(19.3)	305(15.3)	690(17.3)
좋은 성품	41(2.1)	38(1.9)	79(2.0)
운이나 요행	2(0.1)	3(0.2)	5(0.1)
가정 배경 및 인맥	19(1.0)	21(1.1)	40(1.0)
학벌	21(1.1)	11(0.6)	32(0.8)
합계	2,000(100.0)	4,000(100.0)	4,000(100.0)
χ^2	60.35*		

* p <.05

V. 결론 및 제언

1. 결론

이 연구에서는 계열에 따라 고등학생들의 가정생활 및 학교생활과 진로선택 및 진로의식을 비교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2004년을 기준으로 일반계 고등학교 3학년, 실업계 고등학교 3학년 각 2,000명 총 4,000명을 대표성 있게 추출하여 10년 이상 추적 조사하는 종단면 조사인 한국교육고용데이터의 1차 조사 결과를 활용하였다.

가. 가정생활

첫째, 고등학생들의 보호자 유형은 아버지, 어머니가 보호자인 경우가 전체 고등학생 중, 85.6%로 가장 많았으며,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가 보호자인 경우에 대해 계열간에는 일반계 고등학생(92.3%)이 실업계 고등학생(78.8%)보다 높게 나타났다. 보호자와의 동거여부에 대해서는 전체 고등학생 중, 94.4%가 보호자와 함께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계열간에는 일반계 고등학생(94.5%), 실업계 고등학생(94.3%)이 거의 비슷한 응답을 보였다.

둘째, 고등학생들이 인식하는 부모님 혹은 보호자와의 관계 중, 남성보호자의 경우, 일반계 고등학생들은 '나의 성적에 관심이 많음'(3.96), '나와 그분과 갈등이 있음'(3.88), '나의 의견이나 감정을 믿고 존중함'(3.70), 실업계 고등학생들은 '그분을 존경함'(3.64), '나를 위한 물질적 지원을 해줌'(3.57), '나의 의견이나 감정을 믿고 존중함'(3.55)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여성보호자의 경우, 일반계 고등학생들은 '나의 성적에 관심이 많음'(4.10), '나를 위한 물질적 지원을 해줌'(4.08), '그분을 존경함'(4.06), 실업계 고등학생들은 '그분을 존경함'(3.90), '나의 의견이나 감정을 믿고 존중함'(3.86), '나와 자주 대화를 함'(3.80)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업계 고등학생들은 성적에, 실업계 고등학생들은 보호자에 대한 존경심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일반계 고등학생의 경우, 졸업후 진로 계획의 95.4%가 대학진학이라는 분석내용과 부합된다고 할 수 있다.

셋째, 고등학생들이 인식하고 있는 가정생활의 만족도는 보통이다(3.00)를 기준으로 일반계 고등학교(3.70)가 실업계 고등학교(3.41) 학생들에 비하여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 학교생활

첫째, 고등학교 학생들이 인식하는 학교시설 및 환경에 대한 수준에 대해 일반계 고등학생들은 '컴퓨터, 시청각실'(3.32), '학교주변이 청결함'(3.22), '학교건물과 교실 상태가 청결하

고 좋음' (3.16), 실업계 고등학생들은 '전공실습실의 시설'(3.44), '학교건물과 교실 상태가 청결하고 좋음'(3.32), '운동장 및 체육시설을 잘 갖추고 있음'(3.22)의 순으로 나타났다.

둘째, 고등학생들이 인식하는 교사와의 관계는 '존경하는 선생님이 있음'은 일반계 고등학교(80.9%)가 실업계 고등학교(71.3%)보다 높았으며, '나의 적성과 진로에 관심을 가져주는 선생님이 있음'은 실업계 고등학교(61.0%)가 일반계 고등학교(58.5%)보다 높았으며, '좋아하는 선생님이 있음'은 일반계 고등학교(76.2%)가 실업계 고등학교(70.3%)보다 높았으며, '나를 이해하는 선생님이 있음'은 실업계 고등학교(57.8%)가 일반계 고등학교(56.1%)보다 높았다. 학교생활에서 교사와의 관계는 진학이나 직업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고등학생들이 교사와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인식할수록 진로선택에 도우미 될 것이다.

셋째, 고등학생들이 인식하는 교과흥미 및 교과자신감 중, 교과흥미의 경우 일반계 고등학교(3.18)가 실업계 고등학교(2.84) 학생들에 비해서 교과에 대한 흥미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업계 고등학생들에게만 해당하는 전공교과에 대한 흥미는 3.43으로 높게 나타났다. 교과자신감의 경우, 일반계 고등학교(2.68)가 실업계 고등학교(2.53) 학생들보다 교과에 대해 자신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실업계 고등학생들에게만 해당하는 교과자신감은 1.28로 상당히 낮았다. 선행연구결과에 따르면, 교과에 대한 흥미와 자신감은 미래의 학과 선택이나 직업선택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에 대한 학생들의 흥미와 자신감을 증진시키는 것은 중한 일이다.

넷째, 고등학생들이 접한 재학 중, 일의 경험에서 근로경험여부는 전체 고등학생 중에서 근로경험이 있는 학생은 38.4%이며, 실업계 고등학교(56.8%)가 일반계 고등학교(20.1%) 학생들보다 근로경험이 높았으며, 근로를 하는 이유로는 전체 고등학생 중, 60.3%가 용돈을 벌기 위해서 근로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대해 실업계 고등학교(62.3%)가 일반계 고등학교(54.7%) 학생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생활을 체험하고 적응성을 높인다는 의미보다는 흥미와 관심보다는 경제적인 이유로 근로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봉사활동의 경험여부는 전체 고등학생 중, 의미있는 봉사활동의 경험을 했다고 응답한 학생이 42.2%이며, 계열별로는 실업계 고등학교(42.6%)가 일반계 고등학교(41.9%) 학생들보다 높게 나타났다. 동아리 활동과 학생회(학급) 임원경험여부는 동아리 경험이 있는 전체 고등학생의 39.2%이며, 일반계 고등학교(44.0%)가 실업계 고등학교(34.5%) 학생들보다 높았다. 한편, 학생회(학급) 임원 경험에 대해서는 전체 고등학생의 26.5%가 경험이 있으며, 계열별로는 실업계 고등학교(26.9%)가 일반계 고등학교(26.0%) 학생들보다 근소하게 많았다.

다섯째, 학교전반에 대한 만족도는 보통이다(3.00)를 기준으로 일반계 고등학교(3.30)에 비하여 실업계 고등학교(3.41) 학생들이 학교생활에 대해 더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 진로선택

첫째, 고등학생들이 생각하고 있는 계열선택의 이유는 일반계 고등학생이 대학진학에 대한 고려(73.4%), 실업계 고등학생이 성적 때문(42.7%)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일반계 고등학교의 경우, 2005년 현재 졸업생의 92.9%가 진학하고 있다는 것과 부합이 되며, 실업계 고등학교의 경우는 현행 교육제도에서 원하지 않는 계열에 진학하지 못하고 다른 계열로 갈 수밖에 없는 현실로 진로선택이 환경에 부합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진로지도가 성적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둘째, 계열내의 전공계열을 선택시, 고려사항에 대해 일반계 고등학생은 원하는 직업과 관련성(25.0%)을, 실업계 고등학생은 성적고려(32.1%)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셋째, 재학 중의 진로지도 경험 및 만족도 중, 경험여부는 진로관련검사의 경험(77.4%), 진로상담(51.8%), 학교 및 학과안내(49.0%)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그에 만족도는 '진로관련강연', '학교 및 학과 안내'는 일반계 고등학생들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진로와 직업' 교과 이수, '진로관련검사', '직업체험', '진로상담'에서는 실업계 고등학생들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진로관련검사에 대한 것을 제외하고는 전 영역에서 진로지도경험이 부족하며, 만족도 역시 높지 않게 나타났다. 이로 인하여 학생이 진로선택에 대해 준비나 확신이 부족함이 생길 수 있다.

넷째, 졸업 후의 진로계획에 대해 일반계 고등학생들은 대학진학(95.4%), 군입대 혹은 결혼(3.5%), 순이었으며, 실업계 고등학생들은 대학진학(68.4%), 취업 또는 창업(23.6%) 순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상당수가 고등교육기관으로의 진학을 원하는 경향이 두드러진다는 것은 사회에서 성공할 수 있다는 대안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며, 이로 인한 대학진학 위주의 진로교육으로 인하여 비진학 청소년들의 문제가 초래된다고 볼 수 있다.

다섯째, 고등학생들이 대학진학, 취업 또는 창업, 진로를 결정하지 못한 이유 중, 대학진학의 목적에 대해 전체 고등학생 중, 47.3%가 '더 나은 직업을 갖기 위해'라고, 취업 혹은 창업을 하고자 하는 목적에 대해 전체 고등학생 중, 30.6%가 '돈을 벌고 싶어서'라고, 진로미결정 이유에 대해 전체 고등학생 중, 30.7%가 '내가 잘하고 좋아하는 것을 모름'에 응답하였다. 대학진학의 목적을 좋은 직업을 얻기 위해서라는 응답이 높은 것은 대학을 학문을 위한 곳이 아니라 직업을 갖기 위한 수단으로 여기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라. 진로의식

첫째, 고등학생들이 인생을 사는 데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전체 고등학생 중, 30.0%가 '좋은 배우자와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것'으로 응답하였으며, 계열별로 '좋은 배우자와 행복한 가정 이루는 것'에 대해 일반계 고등학교(30.0%), 실업계 고등학교(30.1%)로 거의 같은 비율로 나타났다.

둘째, 고등학생들이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는 역할모델은 전체 고등학생 중, 58.1%가 있다고 응답을 하였으며, 일반계 고등학교(61.5%)가 실업계 고등학교(54.0%) 학생들보다 높게 나타났다. 청소년시기에 본보기 행동을 제공하는 부모, 교사, 조연자들이 청소년들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에 개인의 진로개발 및 진로 성공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특히, 이 경우 교사의 영향력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교사의 적극적인 노력

이 요구된다.

셋째, 고등학생들이 직업을 가지려는 이유에 대해 전체 고등학생 중, 53.0%가 ‘자신과 가족의 생계 유지’를 위한 것으로 응답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자아실현’(25.8%), ‘사회적으로 인정받기 위해’(17.5%) 순으로 나타났다.

넷째, 고등학생들이 인식하는 직업선택시 중요한 요소에 대해 전체 고등학생 중, 38.6%가 ‘자신의 소질이나 적성에 맞는 것’을 응답하였으며, ‘높은 임금, 소득을 기대할 수 있는 것’(21.3%), ‘자신의 발전가능성이 큰 것’(12.4%)의 순으로 나타났다. 직업선택시 소질이나 적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는 것은 학생들이 자신의 적성에 맞는 직업을 선택하여 독자적인 활동을 통해 자신의 소질을 계발하고 능력을 최대로 발휘하면서 자아실현을 이루고자 하는 의지라 할 수 있다.

다섯째, 고등학생들이 인식하는 직업생활을 성공적으로 하기 위한 중요한 요인에 대해 전체 고등학생 중, 52.5%가 ‘본인의 노력과 성실성’이라고 응답을 하였으며, ‘본인의 능력’(17.3%), ‘돈(자본)’(13.7%), ‘대인관계’(12.7%)의 순으로 나타났다. ‘본인의 노력과 성실성’이 가장 높은 것은 학생들이 건전한 직업관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 제언

이상의 연구 결과를 통해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고등학교 자기자신에 대한 탐색, 이해를 통해서 자신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통해서 진로선택을 할 수 있게 해주어야 한다. 연구결과에서 처럼, 진로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학생의 적성과 능력이 최우선 고려 요인이라는 반응을 보였으나 자신의 소질·적성 인지도는 낮은 편이어서, 자신의 신체적 조건, 적성, 흥미, 성격, 능력, 가치관을 알기 위해 초등학교 때부터 일관성 있고 체계적인 활동 및 교육이 실시해야 하고, 동시에 직업체험이나 동아리 활동 등을 통해 자신에 대한 이해의 경험을 가지게 할 수 있는 프로그램 및 검사도구, 활동을 적극적으로 제공해 주어야 한다.

둘째, 학생들의 진로에 대한 의식은 건전하나 교사가 진로에 대한 전문지식을 가지고 진로지도로 하여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야 할 것이다. 진로선택이나 진로결정에 교사의 역할이 미미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교사의 진로교육에 관한 연수를 확대 실시하여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학생지도에 임하도록 해야한다.

셋째, 직업에 대한 의식은 기성세대와 다르다는 것을 인식하고 진로지도에 임하여야 할 것이다. 급속하게 변화하는 산업사회에 발맞추어 개인에게 직업세계와 개인특성(적성, 흥미, 능력)에 알맞는 진로지도로 하여야 하며 사회의 가치관이 변함에 따라 직업관도 변화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학교현장에서도 끊임없는 연구와 가치관 변화를 위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하겠다.

참고문헌

- 강명현(1994). 고등학교 학생의 직업선택 및 직업관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미출판 석사학위논문.
- 강무섭, 박영숙(1984). 학생의 진로결정과 분석.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강차연, 박경(2001). 대학생들의 애착과 진로발달과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3(2), 51-70.
- 권효성(1990). 중학생들의 고등학교계열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교육대학원. 미출판 석사학위논문.
- 김민경(1995). 인문계 고등학생 진로선택에 대한 성별 비교.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미출판 석사학위논문.
- 김봉환, 김병석, 정철영(2000). 학교진로상담. 서울: 학지사.
- 김소영(2004). 공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의 진로의식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미출판 석사학위논문.
- 김원선(1989). 진로의식성숙과 관련변인에 관한 연구 : 상업고등학교 학생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미출판 석사학위논문.
- 김태웅(2002). 공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의 진로선택과 직업의식에 관한 연구. 전주대학교 교육대학원. 미출판 석사학위논문.
- 김필식(1985). 가정환경 변인에 따른 자녀의 문제행동연구.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미출판 석사학위논문.
- 김홍춘(2002). 공업계 고등학교 학생의 진로의식에 관한 연구. 경주대학교 교육대학원. 미출판 석사학위논문.
- 류부현(1984). 자기이해를 통한 인문계 여고생의 계열선택 지도사례. 한국 카운슬러 협회 19차 연차발표 대회. 14
- 맹영임, 김진호, 정철영(2001). 중학생의 진로탐색을 위한 현장체험프로그램 개발 기초연구. 한국청소년개발원 연구보고서.
- 문경중(2003). 공업고등학교 학생들의 진로의식과 직업관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미출판 석사학위논문.
- 문승태, 박몽진(2004). 공업고등학생들의 진로성숙에 영향을 미치는 가정 및 학교환경 변인에 관한 연구. 한국농업교육학회지, 35(4), 177-192.
- 박선식(1998). 상고생의 진로선택에 관한 연구. 서원대학교 교육대학원. 미출판 석사학위논문.
- 박성미(2004). 실업계 고등학생의 자아정체감 상태에 따른 진로탐색 및 진로결정 분석. 수산해양교육연구, 16(1), 11-20.

-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교육연구소(1994). 교육학 용어사전. 서울: 하우동설.
- 신영(2002). 공업고등학교 학생들의 진로의식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미출판 석사학위논문.
- 신용섭(1980). 소명의 교육. 서울: 집문당.
- 신희영(2002). 인문계 고등학교 진로지도에 관한 연구. 경주대학교 교육대학원. 미출판 석사학위논문.
- 안현주(2000). 청소년 진로의식 성숙에 영향을 주는 변인에 관한 고찰, 서라벌대학 논총, 20권, 1-17.
- 오인수(2002). 일반적 자기효능감: 개념, 측정관련 이슈와 인적자원관리 측면의 시사점. 한국심리학회지: 산업 및 조직, 15(3), 49-72.
- 이성진 외(1984). 한국 중고등학생의 진로의식발달에 관한 연구.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이수진(2004). 미용관련 고등학교 학생들의 진로의식과 직업관. 중앙대학교 의약식품대학원 미출판 석사학위논문.
- 이영선(1999). 진로 미결정에 대한 심리적 독립, 애착 및 특성 불안의 관계. 전북대학교. 미출판 석사학위논문.
- 이지연, 윤영한, 김나라(2005). 진로전환기 청소년의 진로개발 실태와 과제. 서울: 한국직업능력개발원(미출판 보고서).
- 이현림, 남혜경(1999). 고등학생의 진로선택에 관한 요인분석. 한국진로상담학회지, 4(1), 53-82.
- 임철중(2002). 가정의 과정환경 변인과 학교생활 적응이 초등학생의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경남대학교 교육대학원. 미출판 석사학위논문.
- 정남기(1994). 일반계 고교생의 진로의사결정 실태 분석. 울산대학교. 미출판 석사학위논문.
- 정철영(1994). 농업계 고등학교 졸업생들의 진로에 관한 연구. 한국농업교육학회지, 26(3), 1-19.
- 정철영(1999). 자녀 진로지도를 위한 학부모 교육의 실태와 개선방안. 진로교육연구, 10, 227-260.
- 정철영, 양한주(1998). 중학생의 직업 가치관과 직업 선호도에 관한 연구. 직업교육연구, 17(1), 41-54.
- 정철영, 최동선(1996). 고등학생의 직업적 성격과 직업가치관과의 관계 분석. 직업교육연구, 15(2), 1-15.
- 진미석(1999). 일반계 여자 고등학교 진로지도 프로그램 개발 연구, 서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차시훈(2004). 인문계 고등학교 진로지도에 관한 연구. 경주대학교 교육대학원. 미출판 석사학위논문.
- 최동선, 정철영(2003). 대학생의 진로탐색행동과 동기 요인 및 애착의 관계 분석. 직업교

- 육연구, 22(1), 115-143.
- 한국교육개발원(2005). 교육정보통계시스템. [On-line]. Available: <http://cesi.kedi.re.kr>
- 한국진로교육학회(2000). 진로교육의 이론과 실제. 서울: 교육과학사.
- 한국청소년개발원(1999). 청소년 진로의식 조사연구.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 한상근 외(2001). 고등학생의 진로선택에 관한 연구 [기본연구 01-25]. 서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허재환(2002). 과학고등학교 학생의 직업관과 진로선택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미출판 석사학위논문.
- O'Brien, K. M., & Fassinger, R. E.(1993). A causal of the career orientation and career choice of adolescent women.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0(4), 456-469.
- Savickas, M. L.(1995). Current theoretical issues in vocational psychology: Convergence, divergence, and schism. In W. B. Walsh & S. H. Osipow(2nd eds.), *Handbook of vocational psychology: Theory, research, and practice*(pp. 1-34). Mahwah,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Super, D. E.(1957). *The psychology of careers*. New York: Harper.
- Swanson, J. L., & Woitke, M. B.(1997). Theory into practice in career assessment for woman: Assessment and interventions regarding perceived career barriers.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5(4), 443-462
- Gibson, D. E.(2004). Role models in career development: New directions for theory and research.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65,134-156.
- Silbereisen, R. K., Vondracek, F. W., & Berg, L. A.(1997). "Differential timing of initial vocational choice: The influence of early childhood family relocation and parental support behaviors in two culture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50, 41-59.
- Werbel, J. D. (2000). "Relationships among career exploration, job search intensity, and job search effectiveness in graduating college student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57, 379-394.